

10-254: 역사와 더불어 살라

hdhstudy.com/1960/10-254-%ec%97%ad%ec%82%ac%ec%99%80-%eb%8d%94%eb%b6%88%ec%96%b4-%ec%82%b4%eb%

역사와 더불어 살라
1960.10.23 (일), 한국 아산

10-254
역사와 더불어 살라
[말씀 요지]

아버님께서 쉬어 가고 거쳐가실 수 있는 집과 마을, 면, 군, 도, 나라가 있어야 한다.

방을 준비해도 하늘의 방과 공적인 방을 준비해야 한다. 밥을 지어도 하늘의 밥과 공적인 밥을 지어야만 한다.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구경시키고 접대할 수 있는 곳이나 집이 적어도 한 부락에 세 곳씩은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서로 교회를 더 잘 짓는 경쟁을 해야만 한다.

앞으로 세계는 누가 더 남을 위해서 충성하는가 하는 것을 경쟁하는 세계가 된다. 그리하여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 대 표자가 되고 출세하게 된다.

선생님은 일생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문제를 생각한다.

앞으로는 영원한 가정과 영원한 인격자를 표준으로 한다. 우리가 옷을 입어도, 음식을 먹어도 그렇지 못한 식구(사 람)들을 생각하면서 살면 복을 받는다.

선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을 중심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또 현재보다 장래를 위하여 움직 이는 데서 결정된다.

사회를 위해 수고하면 사회권내에 기억되고, 국가를 위해 수고하면 국가권내에 기억되고, 세계를 위해 수고하면 세 계권내에 기억되게 된다. 위해서 수고한 그 범위만큼 기억된다는 것이다. 또 위해서 수고한 기간만큼 기억된다. 천년 간 위해서 수고했으면 거기에 정비례해서 기억되고, 또 만년간 위해서 수고했으면 그만큼 기억되게 마련이다.

단 하나 품어야 할 것은 오늘을 위하여 눈물 흘리지 말자는 것이다. 천추만대의 후손을 위하여 눈물 흘려라. 그러면 오늘을 살지만 후대의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된다.

예수는 이스라엘이나 당대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는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역사와 시대와 미래를 위해서 살았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고마운 것은 창세 당시의 심정, 타락 당시의 심정, 과거의 심정, 현재의 심정, 미래의 심정을 품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와 더불어 살라. 역사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다.*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